

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

- '우리 것을 찾는 잡지' 등장-주부 安淑禧씨, 「나랏말싸미」 창간/고유어·역사 등 재미있게 소개...페이지마다 낱말찾기 등 실어/올봄 출판사 등록, 여직원 둘과 함께 보람의 편집(서울신문 6월 17일 朴康文 기자)
- '제주4·3사태' 소설화 붐물-「한라산」 「땅울음」 등 현대사비극 본질 그려(동아일보 6월 17일)
- 쏟아지는 교양불교서적-필진은 태부족...기초지식전과 등엔 성공했으나 번역물 많은 게 흠/승려·학자들 연구를 출판에 연결시켜야(중앙일보 6월 18일 任載杰 기자)
- '내딛는 첫발은」 「불신시대」 「동지와 함께」 등 속간-노동문학 형태 詩에서 소설로...자생력키워 새 단계로/"민중문학 새위상"평가(한국경제신문 6월 18일)
- 정기간행물 2,747종-5월말 현재 9종 자진폐간(한겨레신문 6월 18일)
- 출판규제 '사슬'을 풀어야-韓出協이 주장하는 관계법령 개폐방향...출판사등록은 단순신고로만/유언비어' 규정·납본의무 폐지돼야(중앙일보 6월 20일 李憲益 기자)
- '개인전집' 출간 잇달아-함석헌·윤석중전집 이어 이승녕·고은씨도 준비/정치·민속·문학 등 다양...생애·업적 이해에 큰 몫(경향신문 6월 20일)
- 월북서인 이용악전집 출간-39년 만에...詩97편, 산문10편 수록/일제시대 流離民의 삶 깊이있게 통찰(일간스포츠 6월 20일 李滿 기자)
- 만화잡지시대-13종 새로 나온다/11종이 성인용...모두 등록필증 교부/한정된 작가·시장쟁탈전 치열할듯...일부선 과다경쟁·작품질 저하 우려(일간스포츠 6월 20일 朴載均 기자)
- 정보관련서적 출간붐-실용차원보다 정보화시대 길잡이 역할/이른바 실제 견해 사회변화 모습 등 다뤄(중앙일보 6월 21일 安煥彥 기자)
- 정치풍자한 콩트·만화 선풍-콩트집 「대통령...」 만화 「보통고릴

- 라」 인기/「성역」 허물고 권력비판 신랄히...베스트셀러 부상...석달 새 5만부나 팔려(경향신문 6월 21일 孫東佑 기자)
- 대학 저작권 교육 부진-전문교수 모자라고 교재빈곤 겹쳐(경향신문 6월 21일)
- 이용악전집 출간-「월북문인」 38년만에 햇빛 시97·산문10편 수록...식민지 암울시대 그린 리얼리즘 극치/분단 애도하는 시혼...잊혀졌던 북방정서 가득(한겨레신문 6월 21일 趙善희 기자)
- 무크誌 「포항문학」 특집-"창작근거지·주제가 문학성 규정"...향토성만 강조한 지방문학과 달라/「지방」 한계성 극복될 때 문학중심권 진입...美·獨 등은 신문·출판사 기반의 '개별활동' 민족현실의 전체성 수용여부가 과제로(서울신문 6월 21일 朴成龍 기자)
- '해방전 작품도 풀어야'-문학 2차 해금 문단·학계 개방축구 소리 높아/日帝검열 거친 것...풀어놔도 이념적으로 낡은 것/서점가엔 벌써 20여종 나와 버젓이 독자들과 만나(동아일보 6월 22일 高美錫 기자)
- 좌익서적 9종 고발-문공부 북한 체제 미화...발행·판매자 처벌/「해방조선」 「제주4·3항쟁」 등 포함/작년 431종 금서해제 후 처음(중앙일보 6월 22일)
- 여성지, 질이 높아진다-연예가 화제 스캔들 폭로 등 탈피/생활정보·여성문제 본격 다뤄/「홈토피아」 이미 창간...「여성신문」 곧 선보(한국일보 6월 22일)
- 대학에서의 저작권교육 매우 저조-관련 94개 학과중 9개학과만 강의(매일경제신문 6월 22일)
- 대학에 출판학과 신설 건의-한국출판학회도 문교부에/연20% 양적성장 불구 전문인력 크게 부족...단기코스교육으로 미흡...이론 뒷받침 절실(한국경제신문 6월 22일 李成九 기자)
- 4년제대학 출판학과 신설 건의-"출판물 양적팽창 따른 전문인력 양성 시급"(한겨레신문 6월 22일)
- "전기고문받으며 아우슈비츠수용소 느껴"-김근태씨 고문·옥중기를 엮은 책 「남영동」출간/비인간적 폭력 준엄히 고발(한겨레신문 6월 22일 신연숙 기자)
- 좌익서적 지속적 단속-문공부 「태백산맥」 등 7종 검열에 내용검토 의뢰/ 납본 앓고 멋대로 시판/

- 북한체제 미화...학생 이념교재로 악용"(서울신문 6월 23일)
- 좌익서적 7종 '사법판단' 의뢰-북한체제 미화 '붉은도시' 범람(조선일보 6월 23일)
- "책값 싸지않다" "구내서점 직영하자"-서울 24개대학연합체 구성 공동추진...세금혜택 받으면서 할인 외면하는 '일반인운영' 개선/수익금, 장학금 등 복지사업에 사용계획(스포츠서울 6월 23일 김성호 기자)
- 첫정치코트집 「대통령...」 인기-작가 12명이 집필 지배층 비판(매일경제신문 6월 23일)
- '출판자유' 영역확대노력에 쫓겨-문공부가 검열에 책7종 분석의뢰한 뜻/새 해석 시도...판단은 독자에 맡기는게 바람직(한겨레신문 6월 23일)
- 저작권 전문교육 부족-문공부 조사, 전국 9개대학만 강좌 개설(한겨레신문 6월 23일)
- 몸으로 넓힌 '출판의 지평'/체제서 밀려난 언론인·운동권학생 참여 계기...금기·성역개고 사회과학 값진 성과(한겨레신문 6월 23일 신연숙 기자)
- "출판금고 활성화" 목소리 높다-남아도는 기금...까다로운 용자/자금 절반 이상 사장 '반쪽운용'/규제-절차 완화...출행대출 등 전용모색을(조선일보 6월 24일 曹良旭 기자)
- "서적 7종 사법심사 의뢰 통일은 의 막는 탄압행위"-한출협, 항의성명(한겨레신문 6월 24일)
- 출판부조리척결 다짐 출판문화협 대표성명(경향신문 6월 24일)
- 불황서점가 '독자모으기' 한창-"마주보기", 「홀로서기」제치고 통합1위 올라/광고-신용카드 활용 등 판매전략 부심(조선일보 6월 24일)
- "티베트-몽고문화가 소개된다"-티베트, 불교전래과정연구에 효과적...몽고, 언어·풍습·용모 등 우리와 비슷/열화당·삼성서 기획...국제문화교류 창구역(서울신문 6월 24일 朴康文 기자)
- 사상 첫 '출판민주화' 선언-업계 대표 발표에 1백여명 지지서명/해바라기 성' 출판협 간부 퇴진도 촉구(한겨레신문 6월 25일)
- 「홀로서기」 가장 많이 팔렸다-종로서적 상반기 집계 50위 안에 시집이 16종 소설보다 많아(매일경제신문 6월 25일 文逸 기자)

- 출판계, 정풍운동 '1라운드'-출판사대표 85명 부조리 척결 성명/官발착 출협·出研 자율운영 요구...학교교재 선정 둘러싼 非違 성토(중앙일보 6월 25일 李憲益 기자)
- 출판사난립...저질물 범람-작년 10월 자율화 이후 1천4백곳 늘어...대부분 10명미만 영세...도산 속출/덤핑 일삼아 유통질서 흐트러(서울신문 6월 26일 柳敏 기자)
- 출판계에 혁신운동 파문-권병일 회장 구속사건 싸고 반발...원로 등 백여명 "도덕성확보" 성명(한국일보 6월 26일 金龍善 기자)
- 42년만의 몸부림 '제모습 찾기'-출판협 이사 집단사퇴·혁신선언 배경/관변적 권위주의 각성, 집행부물리가 발단요인(한겨레신문 6월 26일)
- 동호인 '사랑방'으로 각광-종교·어학·음악 전문서점...고급정보 주고받으며 친목도모/관련용품 취급해 부수입 '짹짹'(중앙일보 6월 27일 李憲益 기자)
- "청소년잡지공해 보고만 있을 수 없다"-주부들 앞장 추방 캠페인, Y도서모니터클럽(스포츠서울 6월 27일 임명규 기자)
- "출판정책 쇄신하라"출협회원 성명-80여명 서명...11명은 사표 제출/교과서채택 부조리 등 근절요구(경향신문 6월 27일)
- 저작권침해 여전하다-개정법 발효 1년...고발분쟁 잦아/인지없거나 가짜붙여 책판매/여러작가 작품동의 안받고 모음집도(경향신문 6월 27일 安健赫 기자)
- "출판공해"...고전 오역 많다-한문학자 李載活 교수 지적/원전과 무관하게 자의적 해석 일쑤/고사이에 부족·출판물라 엉뚱한 결과도...한문장기교육 전문가 집중양성을(한국경제신문 6월 28일 白昌玄 기자)
- 공산권작품 해금 이념단서 부당-"순수와 구분기준 애매" 문학계 반발/작품선택은 출판사 자율판단에 맡겨...독자가 골라서 읽는 풍토 마땅(한겨레신문 6월 28일)
- 문허진 '반쪽문학사' 복원작업 본격화-'카프' 등 식민시대~해방공간 시·소설·평론/미발표작품 모아 전집으로 출간 활기(한겨레신문 6월 28일 趙善희 기자)
- 「졸병시대」 한달만에 2만부 돌파-병영서 겪는 사건 에피소드 중심으로 묘사...金田씨 인기소설가로 부상(일간스포츠 6월 29일 李滿

- 기자)
- 서점가에 「동양학」 열전-김용옥씨의 「어떻게...」에 안원전씨 「이렇게...」로 도전장/두 저자 모두 연속 베스트셀러...김씨의 「氣철학」 통렬하게 반박(경향신문 6월 29일 孫東佑 기자)
- 출판사를 찾아서 <2> 삼중당-'하얼빈역두의 총성'부터 57년/'마음의 샘터'로 60년대 독서인구 장악/'주력품목' 베스트문고 현재 132권까지(스포츠서울 6월 29일 박연호 기자)
- 시집 '홀로서기'(I)(II)권 11, 098부 1,2위-상반기 베스트셀러...베스트 50 중 시 16, 소설 13/'시의 80년대' 여전(스포츠서울 6월 29일)
- 출협, 갈등심화...두동강 우려-물의빛은 權炳壹씨 회장부귀로 폭발/서명출판인들 淨化·정책개혁 등 주장(한국경제신문 6월 30일 李成九 기자)
- 베스트셀러 만들어준 「좌익서」 고발-출판사서 관련서적광고내자 독자관심 더 불리(동아일보 6월 30일)
- 지적소유권 보호 1년(上)-물질특허...특허출원 1천4백건 중 내국인 비중 5%그쳐/기업·연구소 신물질개발 방향전환은 고무적...정부연구비지원·업계공동노력 돋보여(매일경제신문 6월 30일 尹德老 기자)
- 한국한자어사전·漢韓대사전 20년 야심작 난관에-단국대서 12년째 편찬작업/1백억원 소요 '大役事'...80억 '지원요청'(조선일보 7월 1일)
- '학생운동' 시기별연구 본격화-'4·19', '80년대 투쟁' 과정·문제점 다룬 책·논문 나와(한겨레신문 7월 1일 신동준 기자)
- 자취감추는 '해적출판'-새저작권법 시행 1년의 실태/86년 17건 등록...올해는 66건/로열티지급액 예상보다 적어...「저작권 위탁관리업」 새로운 직종도 탄생(서울신문 7월 1일 朴康文 기자)